

고흥군, ‘우주선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맞춰 교통 확충 필요 별교~고흥~녹동역 46.8km 연결…1조2000억 규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흥 우주선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지난 7일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고흥의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부각됐다.

정부는 2031년까지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고흥에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152만661.16㎡(46만평)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민간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이 추진되면서 관련 기업과 연구 인력의 유입이 늘고, 발사체 제작·시험·운용 등 관련 산업 활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가 우주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고흥에는 아직 철도망이 구축되지 않아 수도권과 주요 산업·연구 거점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련 기업과 연구



구 인력의 이동에도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주산업은 첨단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간 교류, 관련 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다.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우주산업 기반을 조성

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광역교통망 확충이 늦어지면 국가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군은 경전선 별교역에서 고흥역을 거쳐 녹동역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46.8km, 사업비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고흥 우주선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고흥 우주선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과 주요 산업도시에서 고흥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 인력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

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 투자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이번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산업 기반 확충에 발맞춰 철도교통망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고흥 우주선철도를 이번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에서 우주로 향하는 길을 열었지만, 정작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심장인 고흥으로 향하는 길은 열악하다”며 “우주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략 산업으로, 산업 기반시설과 이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는 반드시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여수의 가을을 문화예술로 물들인 ‘2026 문화의 달’ 행사가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서영학 여수시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해 내빈들이 ‘2026문화의 달 여수’ 기념식에 참여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 조화”... 여수 시민·관광객 호응

시, ‘문화의 달’ 행사 마무리...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

여수의 가을을 문화예술로 물들인 ‘2026 문화의 달’ 행사가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을 비롯해 종포해양공원, 웅천전수공원, 장도 등 시 일원에서 ‘2026 문화의 달’ 행사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공동 주최하고 여수시가 주

관한 행사는 여수 고유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연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 곳곳에 문화예술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지난 17일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여수의 문화적 특성을 담은 주제공연과 함께 서도벤드, 솔라, 자이언티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종포해양공원 일원에서는 빛 조형

물과 버스킹, 지역 예술가 참여 프로그램을 결합한 해양거리예술제가 열렸다. 지옥팍과 HYN(박혜원)의 특별공연, YK댄스페스타 등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웅천전수공원에서 열린 생활문화 한마당은 시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선소JC공원과 서시장 포차거리에서는 창현거리노래방과 황인옥의 개릴라 버스킹 등 원도심 찾아가는 문화배달부 프로젝트가 진행돼 도심 곳곳에 공연의 즐거움을 더했다.

문화예술 향유 공간은 섬 지역으로도 확대됐다. 금오도와 개도 일원에서는 섬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지역 간 문화 접근성을 넓히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여수의 가을을 문화와 예술로 풍성하게 채운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시민과 관광객, 지역 예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문화가 일상에 스며들고, 그 힘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개최 시, 24일부터 콘텐츠 등 다채

600여년을 지켜온 낙안읍성의 역사성을 다양한 문화예술축제가 재현된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순천 낙안읍성에서 제31회 순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는 31년을 이어온 대표 민속축제로, 올해는 ‘낙안(樂安), 즐거움을 쌓고 세대를 잇다’를 주제로 읍성만의 고유한 정체성은 유지하되 현대적 감각과 참여형 콘텐츠를 접목했다. 24일 낙안군수 부임행렬, 취타대 행진과 함께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 전후 낙안 락페스타가 진행되며 홍지은, 2AM 창민의 무대 등 공연이 펼쳐진다.

낙안읍성의 전통민속문화를 재현하는 백중놀이, 성곽쌓기, 수문장 교대식, 기마장군 순라위시, 국악, 창극 ‘김빈길 장군’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씨름대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 등이 준비됐다.

순천=박철석 기자 2566pk@gwangnam.co.kr

장흥군,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 ‘온힘’

국도23호선 확장사업 등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백승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간담회에는 사순문 장흥군수, 백승호 익산청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참여했다.

사순문 군수는 핵심 현안인 ‘국도23호선 대덕 연차~순지 구간 4차로 확장사업(L=20.1km, 3694억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8억원의 국비 반영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유치~영암 금정간 시설개량공사 장흥군 구간 우선 추진과 지역개발계획 변경 등 현안사업 2건에 대해서도 익산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사순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수(왼쪽)는 최근 백승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백승호 익산청장은 “장흥군이 추진하는 대덕~순지 4차로 확장 등 현안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장흥을 직접 찾아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익산청에 감사하다”며 “SOC 인프라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익산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구례 재정향우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펼쳐 출향 향우들 지역 방문·소비 유도

구례군 재정향우회가 지난해 두 차례 진행한 장보기 행사를 올해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추진하며 구례 5일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번 행사는 구례군 재정향우회 주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 향우들의 지역 방문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8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화자별로 1대에서 최대 3대의 버스를 이용해 서울 향우들이 구례를 찾았다. 향우들은 구례 5일시장에서 농특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고 인근 식당을 이용하며 지역 상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탰다.

특히, 지난해 두 차례에 그쳤던 행사를 올해 매월 정기적으로 확대 운영해 출향 향우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월 정기적인 방문과 지역 소비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의 사례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우엽 구례군 재정향우회장은 “지난해 두 차례 행사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구례를 찾아 지역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행사를 확대했다”며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꾸준히 행사를 이어오면서 지역과 출향향우 간 유대감이 깊어졌고 고향 구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매월 서울에서 구례를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음에도 꾸준히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전통시장과 지역 식당에 힘을 보태주신 재정향우회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출향향우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u9942@